

## 22 장 예수 : 부족 경계선의 파괴자

**주제 :** 모든 인간사회에서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스포츠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인간사이를 구분하는 부족적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문제점 :**

1. Dualism – 너와 내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나온다.

예) Sematic 종교의 하나인 유대교는 세계 어느 종교와도 비교하기 힘든 부족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나와 너,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받은자와 안 받은자, 깨끗한자와 부정한자, 남과 여 등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2. 종교와 사회도 우리의 불안감과 자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했다.

예) 로마시대때는 적이라고 여기는 남을 해쳐 (전쟁의 승리) 부와 영토를 늘리는 것으로서 평화를 찾았다고 봤다. (= Pax Romana)

3. 이런 종교와 사회는 Monotheistic 하며, Egocentric Entity 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예) 공산주의, 잘못된 종교주의

**의문점 :**

성경에는(특히 구약) 부족적으로 많은 구분을 하고 있다. 특히 신명기 7 장 1 절부터 11 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일곱부족을 물리치고 땅을 빼앗고 차지하라는 야훼의 명령과 약속”이 있고 그 부족들이 항복을 앓하면 남녀노소, 가축까지 몰살시키라는 잔인한 명령이 있다. 여호수아 10 장에는 야훼는 해와 달까지 멈춰가면서 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민족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저자는 P.334 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족적 인간들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P.345 에서는 “부족주의 사고방식은 자의식이 생긴 이래로 인간사회의 한 부분이였다.”라고 했다. 저자가 말하는 “자의식”은 무엇인가?

예수도 근본적으로 “자의식을 가진 부족적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지적했다. 하나님의 천국(God’s kingdom)이 뜻이 이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졌던 그 의식(consciousness)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식을 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